

“쇠고기 끝내고 경제살리기 가야”

李 대통령 긴급 관계 장관 회의 주재

한승수 총리도 대국민 담화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이제 쇠고기 문제를 마무리 짓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온 국민이 힘을 모아나갈 때”라면서 “이런(쇠고기 파동에 따른 국정 혼란)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쇠고기 고시 관련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정부로서는 추가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이종, 삼종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안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만일 고시를 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신뢰도 떻게 되고 추가협상 결과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며 “식탁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내각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원산지표 시 합동단속 강화 ▲경역, 수입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원산지표 시민감시단 운영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4가지 대책을 보고하면서 “국민 설득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에 참석, “요즘 국민이 걱정을 많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쇠고기 고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항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하고 있으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 국민 모두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경제 살리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승수 총리도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내는 등 대국민 설득에 주력했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쇠고기 안전을 위한 정부 노력을 상세히 소개한 뒤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 시위에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전명한 것이나, 한 총리가 “불법 시위에 대해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촛불 시위대 가운데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해 엄정 대응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저변의 민심 회복을 도모, 불법 시위세력과 일반 국민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쇠고기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부가 미국 정부의 압박에 버틸때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도 이해할텐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당은 청와대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청와대의 뒤만 따라다니며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대동무이(大同無異) 상태”라며 “당은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해 수집한 민심을 제 때,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야 할 사람에게 전해야 하고, 항상 깨어 있는 자세를 가져야만 더 이상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허태열 “당·정 너무 조급, 불신 초래”

한나라당 지도부 경선에 출마한 허태열 의원은 26일 “당과 정부가 너무 조급해 오늘의 불신을 가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대전시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등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를 늦추겠다

고 약속해놓고서 그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고시를 해버리니 소동이 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은 “처음부터 고시를 늦추겠다거나 총리가 포함된 계획을 하겠다고 말은 하지 말던지, 아니면 말은 꺼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데 책임을 지지 않으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며 “정

■ 민주당 ‘등원이냐’ ‘장외냐’ 딜레마

‘양다리’ 더이상 안되는데…

통합민주당이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이후 등원해법을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금주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 대표와 통화하면서 ‘야당이 국회에 가서 세제점을 따지고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등원 입장 밟혔으나 그 다음날 홍 원내대표로부터 미국의 요구와 한미 관계 등으로 인해 (고시 연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앞서 “모든 게 막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등원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런 상태라면 제헌절(7월17일)이 아니라 8월15일까지도 (등원이) 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당내 촛불집회 국민보호팀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하는 한편 주말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일 오전 의총을 여는 등 비상체제

에 들어갔다.

원해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금주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 대표와 통화하면서 ‘야당이 국회에 가서 세제점을 따지고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등원 입장을 밟혔으나 그 다음날 홍 원내대표로부터 미국의 요구와 한미 관계 등으로 인해 (고시 연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모든 게 막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등원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런 상태라면 제헌절(7월17일)이 아니라 8월15일까지도 (등원이) 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추가협상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 들어와 논의해야지, 밖에서 억지를 부리는 것은 법치·의회주의를 면밀히 무시하는 폭거”라며 등원 압박을 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동준 예상밖 기세… 박희태와 팽팽

한나라 당권 레이스 초반 2강 구도

한나라당 당권 레이스가 접두되면 서 박희태, 정동준(기호순) 후보의 치열한 접전이 초반부터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확정된 대의원 명부를 갖고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2강2중’의 판세가 뚜렷하다는 게 당 안팎의 대체 관측이다.

선거운동 사흘째인 26일 현재 무엇보다 박희태 후보와 정동준 후보와의 각축전이 두드러진다. 7명이 출마한 이번 당 지도부 경선에서 두 후보가

‘2강’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당권 레이스가 불붙기 전만 해도 당내에서 ‘박희태 대세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나, 초반 판세는 양측이 팽팽히 자웅을 겨루는 양상이라는 것 같다”고 후보측의 분석이다.

이번 전대에서 70%가 반영되는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부 조사 결과 정 후보가 근소한 차로 ‘1위’에 올랐다는 소문도 일부에서 나돌고 있다.

이는 당심은 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것이다.

이와 관련, 정 후보측은 “이번 경선을 통해 ‘대의원 혁명’을 이끌어낼 것”

이라며 “이제는 대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의 로봇 내지 거수기가 아니며, 한나라당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측은 “여전히 우리가 1위”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 후보가 초반 레이스에서 한발짝 앞서 나가 있더라도 결국 막판 조작표가 움직이면 그 결과는 쉽게 뒤집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들 두 후보의 뒤를 이어 허태열, 공선진 후보가 경합을 벌이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이젠! 공무원시험 합격도 전략이 필요하다.”

여름방학 공무원시험 합격전략 **무료** 설명회

일자: 6월 28일 15:30~18:30 (선착순 800명)

당일 종합반수 강자 수강료 10%+교재 할인 30% 할인

• 설명회 참석자 전원회원 5년간 기출문제(25,000원)+고급노트 무료증정 • 당일행운권 추첨 10명 - 당원회원에게 수강료 50% 할인

www.hanbitgosi.co.kr
(홈페이지 참조)

예비공무원 사관학교

한빛 공무원학원

북구청앞 234-0234

제19회 공인중개사
10월 26일 시험대비!
개강 7월 1일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 이해

개강 7월 1일
최종문제풀이
주택관리사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무료 협재 접수증
(6월 30일까지 방문접수 모집)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 · 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롭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7월 1일 주 야
(첫진도 시작반)
문제풀이 특강
(핵심이론+단원별문제풀이 강좌)

고용보험가입근로자교육비환급

수강료 50% · 80% 환급 사전 접수비自理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회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밀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서구점 ☎ 361-8111
▶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문화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 확장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롭빌딩 4층

제19회 공인중개사
10월 26일 시험대비!
개강 6월 21일(토) - 주말반 -
국가공인 5회시험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자격증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 시험: 1차) 8월 31일 / 2차) 11월 9일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 (062)236-2468

- 정부는 올해인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총원할 예정이다 (성황리 강의증)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교체 세습 관리 감사 불법 결혼 공무 투자 전자 투자 복지

* 보건직 전남 23명, 전북 16명 9월 27일, 경기 56명 8월 2일, 서울 29명 (열강증) *

금년 중·하반기 시험

• 전 1회: 제1회 공.경. 9월 27일 209명

• 경기: 제 2회 636, 전북 119명, 경서

• 서울: 일정 7.20, 1.18일, 기타 8.17, 656명

= 갈(惑)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광주 동부경찰서 뒤
(종합초교 후문앞)

222-4560